

꽃 피는 내 나라, 내 조국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7월이 오면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더욱 가슴미여지게 느끼곤 한다. 바라고 기다려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 행운, 그것이 바로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이다.

우리 인민은 복종의 복인 수령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고 있는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어 어제날 빛을 잃었던 조선이 자주와 존엄의 나라로 행성에 빛나고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행복속에 살아오고 있다.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해 말할 때 나에게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받아안은 복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복은 남달리 더욱 크고 값진 것이었다.

10대 시절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께서 울리시던 파발리의 총성을 들으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이 마음속에 싹트고 고향 풍산 땅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볼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마음속에 더욱 억세게 간직했던 할아버지였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았기에 할아버지는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남녘의 차디찬 감방속에서도 수십년간이나

수령님을 믿고 당을 믿고 끝까지 견결히 싸울수 있었다. 이런 나의 할아버지를 수십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할아버지는 조국에 돌아온 후 늘 우리 집안사람들에게 눈물겹게 토로하곤 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할아버지를 《신념과 의지의 화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온 나라에 내세워 주신 따뜻한 그 사랑.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태양절날 아버지수령님께서 할아버지의 병상을 찾았으며 리인도 같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을 가진 것은 조선로동당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입당당시의 당원증번호와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당원증과 금시계를 친히 수여해주시고 몸소 찍어주신 기념사진은 우리 가문의 가보로 고이 간직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녘의 감방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던 할아버지의 정상이 못내 가슴아프시어 인민들이 지성담아 올린 선물세일이불마져 로젠회에 건강회복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 감동깊은 사연들, 그 심혈과 로고를 어

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귀중한 보약, 사랑의 불사약으로 되어 조국에로의 귀환후 불과 며칠밖에 못산다면 남조선의학계의 진단을 부정하고 할아버지는 조국의 품속에서 14년간이나 행복속에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기에 할아버지는 꿈같은 행복과 추추치는 걱정을 글줄에 담아 《우리는 수령복이 있습니다》를 비롯한 여러권의 글들을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하였다. 각계층 조국인민들로부터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수령복에 대한 그 글들은 할아버지의 심장에서 울려나온 고마움과 격정의 웨침이었고 자기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마음속에 간직해온 긍지와 행복감의 거센 분출이기도 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인민이다.

행성을 향해 이런 긍지높은 웨침을 터치는 것이 우리 인민밖에 세상에 더 있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삶과 운명의 태양으로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오늘도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하고있으니 그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집안을 비롯하여 이 땅, 이 하늘가에 가득 넘쳐나고 있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오노람 (리인모선생의 외손녀)

수령님들 그대로 이시고 주시는 사랑도 수령님들의 햇빛같은 사랑 그대로이다. 그 따뜻한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으니 인민이 안겨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은 원수님 계시어 밝고 따뜻한 우리 집, 모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우리 집, 미레가 창창한 사회주의 우리 집이다.

온 나라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할아버지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령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할아버지의 이름도 값높이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정녕 위인이 계시어 복받은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어제와 오늘이 있으며 후손만대로 복락을 누릴 우리 민족의 창창한 메일이 있다.

나는 내 나라가 더욱 강대해지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행복속에 살려면 령도자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모두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받들고 따르는 충정과 보답의 한길에서 생의 아름다운 자욱을 새겨가겠다.

오노람 (리인모선생의 외손녀)

원수님 품이 더 따뜻합니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7월이다. 온 나라 인민들과 산천조국이 통채로 눈물에 잠겼던 비애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건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인민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수령님의 태양같은 그 미소는 더더욱 사무치게 안겨들고 있다.

어제 세월이 흐른다고 잊을수 없으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것은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것이며 가장 보람있는 일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고 하시며 비내리는 아침에도 눈내리는 깊은 밤에도 쉬임없이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신 아버지수령님.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 직후 골골에도 그러던 고향을 곁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자들을 찾아 떠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온다. 사연깊은 철의 기지를 찾으면 무너진 벽체에 앉아서 페허를 하루빨리 가지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가 들려오는 듯하다.

농촌에 가시면 농장원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어 농사일을 의논하시고 여촌에 가시면 어부들과 함께 그물도 만져보시고 수천척지 하막장에 들어가시면 탄부들의 험한 손도 스스럼없이 잡아주시던 그이입니다.

이 땅 그 어디에나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이 어려 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하기에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를 내리는데 또 어디 가지 읊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 습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 습기를 수령님 인민들은 바라 읊니다 ...

부르던 부름수록, 들으면 들수록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와 누구나 눈시울 축축히 젖어들게 한다.

인민들 누구나 아버지수령님께서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아뢰었건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시며 춘하추동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한순간 휴식마저 잊으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걸고 걸으시던 인민을 위한 그 길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고 걸으시었고 오늘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저물어가는 삼복의 무더위와 손발이 얼어드는 추운 겨울에도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입니다.

어느 깊은 밤에도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무거운전차를 몸소 타시고 시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인민들이 앓을 평범한 좌석에 앉으시어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으로 눈시울 적시었다.

경치좋은 대동강기슭에 자리 잡은 회한한 문수물놀이장에도

인민의 아버지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가 깃들어있다.

근 11만㎡에 달하는 부지면적에 각종 수조와 물미끄럼대, 물놀이기재들이 꽉 들어찬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으로 구성된 문수물놀이장의 113건이나 되는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로고는 또 얼마이던가. 그 형성안들가운데는 그이께서 친히 새롭게 발기하시고 하루밤동안에 흠잡을데 없는 완벽한것으로 완성시켜 주신 실내체육관형성안에 대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참으로 자신의 천만고생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며 그이께서 걸으신 길, 지새우신 밤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 겨레가 소원하는 조국통일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도 제일 먼저 여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입니다. 인민들이 행복의 단잠을 잘 때 그이 대신 아전차는 령길을 달고 있었고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이른새벽에도 그이의 집무실창가에 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있었다.

그 무수한 헌신의 낮과 밤들이 모이고 모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범법하지 못하는 강국으로 우뚝 일떠섰고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삶을 빛내이고 있다.

그렇스록 이 나라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더욱 갈마드는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의 전부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이다.

하기에 누구나 한목소리로 간절히 아뢰이고있다. 눈물겹도록 마음속전정을 터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 밤이 떠 갔 습니다!》

본사기자 유금주

세기를 이어 울려가는 노래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들으며 -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공화국인민들이 제일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중의 하나이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어찌하여 이 가요를 그토록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에 공화국의 훌륭한 력사와 인민의 존엄이 그대로 어려있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노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시대에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온 인민들의 긍지높은 모습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인민의 존엄을 최대로 누리는 긍지높은 나날들, 주우면 주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위해주고 아껴주는 아버지의 다스린 손길아래 먹을 걱정, 입

을 걱정, 쓰고살 걱정, 자식 공부시킬 걱정 등 온갖 걱정을 모르며 이 세상 부러움것 없이 살아온 웃음넘친 나날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온 나날들. ...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기들의 삶을 노래에 담았다.

이 행복, 이 기쁜은 누가 주었던가. 위대한 수령님이 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듭거듭 안겨 주신것이였다.

노래에도 있듯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었고 그 햇빛보다 따사로운 품은

정든 《우리의 집》이였다.

온 나라 대가정에 위대한 아버이를 모시어 자랑높고 행복했던 그 나날들을 공화국인민들은 세월이 천만년 흘러간들 결코 잊을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는 이 땅에서 세기가 바뀌어져도 진할줄 모르고 계속 격조높이 울려가고있다. 공원무대와 가정들에서, 학교와 일터마다에서, 거리들에서...

오늘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적대세력들의 악착스런 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장애

가 많이 가로놓여있다. 이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적대세력들이 휘두르는 제재와 압박의 도수는 최절정으로 치달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금도 두려움없이, 신심드높이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그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도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비록 모든것이 풍족하진 못하지만 인민은 자기 조국과 제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긍지감이 넘쳐 이 노래를

부르고있다.

남들보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한다 해도 자주적인 인민으로 존엄높이 살고있는 이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기에, 오늘은 여러 위도 만복의 맑은 레일이 기어이 온다는것을 너무도 확신하기에.

오늘 공화국인민들에게 존엄을 주고 행복을 주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는 위대한분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은 천하를 울리고 그이의 세련된 령도

는 세월을 주름잡으며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고있다.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아버이》라 부르며 안기고 따르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술결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나라, 화복한 하나의 대가정이 되여 세인의 각광을 모으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굴

은 조국에, 건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우리 힘 꺾을자 그 어찌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빛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렵 몰라라 ...

적대세력들의 최후박약에 정면돌파전으로 맞서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가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더 높이 울리고있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백두산악같은 당력과 승리의 기상을 안고 조선은 힘차게 나아가며 더 좋은 미래를 앞당겨 건설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대건설의 불길을 지었던 전세대들처럼 기어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일떠세우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탁월한 령도자로, 아버이로 모신 조선의 대가정에서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높이 울려져갈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인민의 행복속에 깊어가는 평양의 밤